

* 저희 코참의 경제정보 및 세미나 발송 메일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office@kocham.ccsend.com 라는 메일주소로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기존과 같이 office@kocham.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ADP 데이터, ‘올 1월에 미 채용과 임금 인상 둔화됐다’
- YahooFinance: 1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 2년만에 최고치
- Bloomberg: 연준 금리 유지 예상되면서 인하도 검토할 듯

[미국 금융]

- WSJ: 감세 좋아하는 공화당, 7백80억불 양당 감세안에 불만
- Bloomberg: 미국, 분기별 국채 매각 증가... 부양책 사라져

[주택]

- CNN Business: 미 주택 세입자 절반이 임대료 지급에 힘들어 해

[무역]

- CNBC: 무역 전문가들, “홍해 리스크가 물가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어”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Z세대, 암울한 경제 전망에 “파멸적 소비” 성향 보인다
- Bloomberg: 보잉, 안전 문제로 고심하며 올해 재무 전망 발표 철회
- WSJ: 월마트, 향후 5년간 매장 150곳 추가 확장 계획
- Bloomberg: 스페이스X, 에어버스 우주정거장 발사 계약 성공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Hiring and Wage Growth Slowed in January, ADP Data ADP 데이터, ‘올 1월에 미 채용과 임금 인상 둔화됐다’

- 올해 1월 기업들이 예상보다 적은 수의 일자리를 추가했다. 노동시장이 점차 냉각되고 있는 것이다.
- ADP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1월 민간 일자리는 10만7천건으로 늘었다. 이는 12월의 하향 조정된 15만8천개 보다 적다. 고용은 둔화된 반면 인력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제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 명목 임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Bloomberg 기사

YahooFinance: US consumer confidence rise to two-year high in January 1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 2년만에 최고치

- 1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가 인플레이션 둔화와 연준의 금리 인하의 예상 가운데 2년래 최고치로 상승했다.
- 컨퍼런스 보드가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신뢰지수가 1월에 114.8로 상승해서 지난 2021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이 수치는 12월에 하향 조정된 108.0에서 줄어든 수치.
- 이같은 신뢰도 상승은 인플레이션 둔화, 금리 인하의 기대감 외에 기업들이 계속 노동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자료를 발표한 관계자는 밝혔다.

YahooFinance기사

Bloomberg: Fed to Hold Interest Rates Steady But Start Considering Cuts 연준 금리 유지 예상되면서 인하도 검토할 듯

- 오늘 수요일 연준이 금리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리는 5.25%~5.5%로 이는 작년 7월에 처음 도달한 22년래 최고치다.
- 현재 투자자의 40%는 3월에 첫 금리를 예상하고 있으나 연준 관리들은 그건 너무 빠르다는 입장이다.
- 아마도 파월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의 하향에 만족감을 보일 것이지만 긴급히 금리를 내일 가능성은 없다. 물론 그는 강한 노동시장과 강한 경제성장을 언급할 것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Tax-Cut Loving Republicans Grumble at \$78 Billion in Bipartisan Tax Cuts

감세 좋아하는 공화당, 7백80억불 양당 감세안에 불만

-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감세를 지지하는 당이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기업체들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7백80억불 양당 안에 반대하고 있다.
- 당초 이법안은 기업 감면 혜택을 다시 살리고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달 세입세출위원회에서 40-3으로 통과될 때 민주당만 반대했었다.
- 그런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빠르면 이번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자녀 세금 공제 확대가 근로 의욕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 또 다른 의원들의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사회보장번호를 가지면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중인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US Increases Quarterly Debt Sale, Sees No More Boosts Coming

미국, 분기별 국채 매각 증가... 부양책 사라져

- 연방 재무부는 분기별 장기 국채 발행 규모를 세번째 연속 늘렸는데, 내년 까지 더 이상 그런 발행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연방 재무부는 어제 수요일 성명을 통해 다음주 3년, 10년, 30년물 장기 국채를 상대로 하는 분기별 환대 경매에서 1천2백10억달러 규모의 장기 채권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향후 차입 수요를 감안할 때 향후 몇분기 동안 오늘 발표된 규모 이상으로 명목 쿠폰이나 변동 금리부 채권 경매 규모를 추가로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주택]

CNN Business: Half of US tenants can't afford to pay their rent. Here's what's ahead

미 주택 세입자 절반이 임대료 지급에 힘들어 해

- 수년 동안의 임대료 상승 때문에 미 세입자 절반이 임대료를 지불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다행히 다가구 건물이 건축 되면서 임대료 폭등을 점차 줄고 있다.
- Reator.com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월 임대료는 8개월 연속 하락했다. 희망 임대료 중간값은 21천7백13불로 121월 보다 4달러, 작년 7월 최고치 보다 63불 하락했다.
- 그러나 중간 임대료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여전히 3백9불 높으며 이는 22% 상승한 수치다.

CNN Business 기사

[무역]

CNBC: 'No shipping, no shopping': Trade experts warn Congress what more Houthi Red Sea chaos will mean for economy 무역 전문가들, “홍해 리스크가 물가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어”

- Maritime의 컨설턴트인 Dr. Ian Rabby는 어제 화요일 의회에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이 오일 시장에서보다 소비자 물가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회에 나와 말했다. 글로벌 컨테이너선의 30%가 홍해 지역을 통과하는 반면, 유조선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한편, 전미 소매업 협회(NRF)는 미 하원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화물 운송료가 두 배로 뛰고 있으며, 소매업체들이 증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이미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Gen Z Is Splurging on Luxury Goods to Soothe Their Economic Despair Z세대, 암울한 경제 전망에 “파멸적 소비” 성향 보인다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소비를 줄인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미래를 어둡게 바라보며, 그 반대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개인자산관리 기업인 Credit Karma에 따르면, 대략 27%의 미국인들이 불안한 경제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려 때문에 “파멸적 소비(doom spending)”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그 응답 비율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G 세대가 각각 43%와 35%로 특히나 높았다.
- 해밀턴 컬리지의 경제학 교수인 Stephen Wu는 이런 미래에 대한 체념과 이성애 반하는 소비 습관이 팬데믹과 불황을 겪으면서 더 보편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가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인이라 말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Boeing Pulls 2024 Guidance as It Grapples With Safety Lapses 보잉, 안전 문제로 고심하며 올해 재무 전망 발표 철회

- 보잉이 올해 재무 전망을 발표하지 않았다. 737 Max 기종의 플러그 도어 폭발 사고가 원인으로 보인다.
- 이 기업 CEO인 Dave Calhoun는 직원들에게 이맘때쯤 기업의 재무 및 운영 목표를 공유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으며, 앞으로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언급했다.

- 보잉의 주가는 오늘 아침 4% 상승했다. 보잉의 주가는 올해 들어 23% 하락했는데, 이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30개 종목 중 최악의 성적이다.

Bloomberg 기사

WSJ: Walmart, in a Reversal, to Open New Stores in the U.S. 월마트, 향후 5년간 매장 150곳 추가 확장 계획

- 거대 소매업체 월마트가 향후 5년 동안 미국에 150개의 매장을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다. 추가될 대부분의 매장은 새로운 위치에 오픈한다. 이는 기존에 매장 수를 유지하고자 했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다.
-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이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하고 있으며, 소매 기업들은 이커머스 전략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사용하고 있다. 코어사이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에 신규 매장 개업이 폐업을 앞섰다고 한다.

WSJ 기사

SpaceX's Starship Wins Contract to Launch Airbus Space Station 스페이스X, 에어버스 우주정거장 발사 계약 성공

- 스페이스X의 스타십 로켓이 유럽의 에어버스 SE가 일부 참가해 생산한 상업용 우주 정거장 발사계약에 성공했다. 거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 에어버스와 보이저 스페이스 홀딩스가 만든 우주정거장 스타랩은 향후 10년간 연구 및 상업용 전초기지로써 개발되고 있는 여러 민간 궤도 우주 정거장 중 하나이다.
- 한편, 스타십 로켓은 완전히 재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스페이스X의 차세대 발사체인데, 이 기업은 스타십이 앞으로 대형 위성은 물론 스타랩과 같은 우주 정거장을 화물선으로써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AI' 발전의 그림자?...미 테크 기업·사무직 줄줄이 해고

물류업체 UPS, 1만2천명 감원...결제업체 블록, 연말까지 구조조정 올해 해고 트렌드는 '소규모·타깃에 집중'..."노동시장 둔화 신호"

미국 대형 물류업체 유피에스(UPS)가 업황 둔화 속에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관리직 등 직원 1만2천명가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UPS 임원진은 30일(현지시간) 전 세계 8만5천명 규모인 관리직 직원 등을 중심으로 감원을 단행할 방침이며 업황이 개선되더라도 해당 직무에 추가로 고용을

24. 1. 31. 오후 2:47

Constant Contact

늘리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UPS 전체 직원 49만5천명 가운데 대부분은 노조에 속한 물류·운송직인데, 노조원들은 이번 해고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